

광주 사립교사 위탁채용 무산

광주시교육청이 사립 학교 교사 위탁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공동 전형 거부 결정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고 신규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법인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차 시험 과목, 시행 시기, 합격자 배수 등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며 "협의회가 면접위원 구성에서 인사권 침해라며 교육청 1명 추천을 거부함에

시교육청 협의 결렬에 유감 표명 '인사권 침해' 주장 이해할 수 없어 교육청 개별 법인과 공동전형 추진

따라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위원 중 교육청의 1명 추천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도로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인데, 인사권 침해를 주장하며 거부한 법인협의회 결정에 역시 인상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위탁채용이 무산됐지만 오는 12일까지 개별적인 법인 실적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립학교와 공동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5개 법인이 15명의 신규교사 위탁채용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기관 경영평

가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사학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민주성 확보, 공·사립 인사교류 확대, 학급수·교원 정원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지역 내 예비교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법인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학들이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했다"며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파리 흉기 난동범, 청년 3명 쇠 불에 제압

지난 9일 밤 파리 시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흉기 난동범이 7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이를 제압한 것은 친구들끼리 프랑스 전통 놀이인 페탕크(Petanque) 게임을 하러 가던 3명의 청년들과 이들의 게임 용 쇠구슬이었다.

페탕크 선수인 부제마 하미니와 친구 2명은 마침 밤행 현장 부근에 있다가 갖고 있던 놀이도구를 흉기범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

파리 19번 구역에서 흉기범을 만난 이들은 평소같은 느리게 살살 굴리는 이 쇠 불뿔 수 십개를 그를 향해 던지고 게임용 나무판으로 머리를 가격해 유혈 사태를 막았다. 잘그랑 거리는 이들의 쇠구슬이 아니었다면 이 날의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사태가 커졌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건발생지역은 주말에 사람들이 붐비는 극장과 가족 나들이 지역으로 이 날 부상자들 중에는 영국인 관광객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상자 7명중 4명은 중상이고 그 중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흉기범은 현재 경찰에 구금되어 있으며 경찰은 그의 범행동기 등 사태 진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교도소, 범죄조직 습격 105명 탈옥

브라질의 범죄조직이 북동부 지역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100여 명이 탈옥했다고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과 신화 통신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9일 북동부 파라리바 주의 주도(州都)인 주앙 페소아에 있는 호메우 곤사우비스 아브란치스교도소가 범죄조직의 습격을 받았으며 총격전 등으로 혼란한 틈을 타 105명이 탈옥했다.

사회안전부(SED) 발표에 따르면 20여명으로 추정되는 범죄조직원들이 4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교도소 감시탑을 향해 총격을 하면서들이 달렸다. 이들은 수감된 동료들을 빼내기 위해 폭발물을 이용해 5미터 높이의 교도소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경찰은 말했다.

일당의 또 한 부대는 교도소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작전을 지원했다. 경찰은 이번 습격이 지난 달에 체포된 차량 금고 및 현금지급기 전문털이 조직범들 4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탈옥수들 중 33명은 나중에 체포되었지만 나머지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인근 학교들과 대학의 모든 수업을 중단시키고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시설도 모두 임시 폐쇄했다. 정원이 680명이던 이 교도소에는 현재 68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4등급 허리케인 플로렌스 美동부 접근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4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해 남동부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30년만에 미 남동부에 상륙하는 거대 허리케인에 미 당국은 주민들에 의무 대피령을 내리는 등 긴밀한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대서양에 위치한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위성영상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동부해안에 거주하는 여러분 이 태풍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필요한 모든 대비 조치를 취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허리케인의 진로에 있는 주민들은 대비를 하고 주정부와 당국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미 정부는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립허리케인센터(NHC)와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오후 11시 기준 플로렌스는 최고 풍속이 시속 140마일(225km)에 달하는 4등급 허리케인이다.

허리케인은 1~5등급으로 분류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피해 수준도 높다. 4등급 허리케인은 담장이 무너지거나, 가정의 지붕이 날아가는 정도의 강력한 돌풍을 동반한다.

NHC는 "플로렌스가 오늘 아침 메이저 허리케인이 됐다. 13일까지 매우 위험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플로렌스는 13~14일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행안부, 폭염 등 기후 재난 대응조직 강화

'기후재난대응과' 신설

행정안전부는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과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재난안전조정관이 재난 협력실로 개편된다. 비정형적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협력실 안에 '기후재난대응과'가 신설된다.

기후재난대응과는 폭염·황사·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기후재난의 사전 대응과 상황관리를 담당한다.

기후재난대응과는 또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내진 강화, 액상화 등 지진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재민 구호 인력을 확충한다.

이 밖에 지난해 포항지진 당시 임시로 파견돼 지 자체 지진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한 중앙수습지원단이 수습지원과로 상설화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변화를 모색했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가을과 만나는 제비나비 11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면 인근 들녘에서 제비나비 한 마리가 백일홍에 앉아 꿀을 따고 있다.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父 친구 계획·단독범행" 결론

강진경찰서, '공소권 없음' 오늘 검찰 송치

경찰이 강진 실종 여고생은 아버지 친구의 계획·단독 범행으로 살해했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강진경찰서는 오는 12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51)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2시께 부터 오후 4시54분께 사이 강진군 한 아산으로 B(16)양을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양의 아버지 친구인 A씨의 정확한 살해 동기와 수법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패가 심한 탓에 B양의 사인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질식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7월9일부터 범죄분석요원(전문프로파일러)과 법의학·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을 투입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전문가들은 각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했을 것 이라는 추정만 했을뿐,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트렁크와 집에서 발견한 낫 손잡이·전기 이발도구에서 B양의 유전자 나옴 점, B양 정밀 부검 결과에서 A씨가 구입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두 사람의 동선, 통신·탐문 수사, 참고인 진술 결과를 종합해 A씨가 홀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6월12일 B양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으며, 6월14일 병원 치료를 받아 수면유도제 28정을 구

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6월24일 아산에서 발견된 B양의 시신에서는 A씨가 구입한 것과 같은 수면유도제 0.093mg이 검출됐다.

A씨는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당일 전기이발도구와 낫 등을 등산기방에 담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기이발도구에서도 B양의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A씨가 범행 당일 귀가하자마자 집 소각장에서 태운 물건에서도 B양의 흔적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태운 가방 잔식품, 바지 단추, 전조각을 감정한 결과 실종 당일 B양이 착용한 바지, 손가방과 같은 종류로 확인됐다.

A씨는 6월17일 오전 공사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추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김영일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건강 IN
신뢰한 정보,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때, 자활치료 중인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h-well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